

2008. 9. 15 제199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9. 15 제199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의 CO₂ 감축 의무제도

문화·디자인

1. 지역 특징 살려 디자인한 자전거 거치대 (뉴욕)
2. '미술 작품=고가' 인식 깨는 미술 박람회 (베를린)
3. 상가 화장실, 시민 모두 함께 이용하세요 (런던)
4. 도시 홍보용 DVD와 가이드북 제작 (도쿄)
5.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브랜드화 사업 (요코하마)

산업·경제

6. 런던市와 관광 홍보 교류 (도쿄)
7. 무허가 영세 자영업자 합법화 추진 (브라질)

건강·복지

8. 노숙자의 희망을 담은 친환경 복합주거 (로스앤젤레스)
9. '배리어프리 도시' 만들기에 인터넷도 한 몫 (베를린)
10.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 허가권 발부 (브라질 상파울루市)

목 차

방재·안전

11. 모든 교육기관에 긴급 구조벨 설치 (상하이)

도시환경

12. 세금공제 대신 '환경수표' 받아주세요 (베를린)
13. 공공도서관을 친환경 도서관으로 리노베이션 (로스앤젤레스)
14. 저배출지역제 시행에 관해 낙관적인 평가 (런던)
15.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설 위원회 설치 (런던)
16. 환경보호 콘서트 열어 도시 녹화 기금 모집 (도쿄)
17. 공공기관 건물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상하이)

도시교통

18. 도심 혼잡도, 혼잡통행료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런던)
19.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첫 시행 (워싱턴 D.C.)
20. 도로 소음방지 위해 기업 의견 수렴 (베를린)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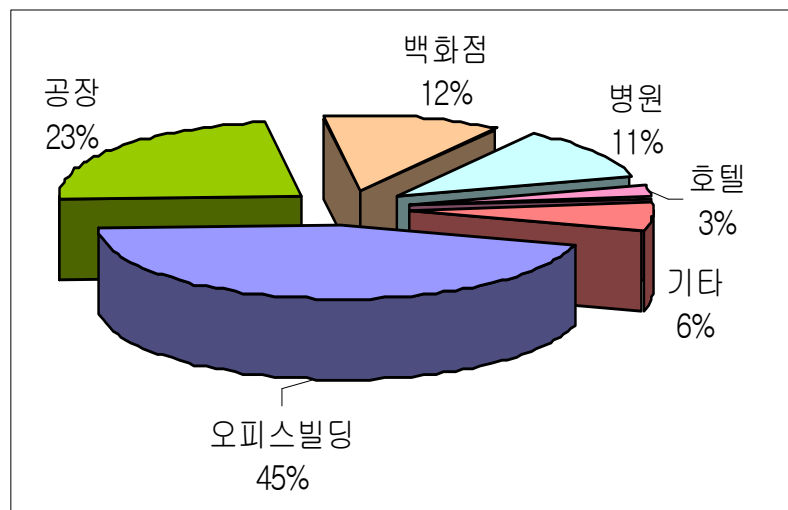
21.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 조례 통과 (로스앤젤레스)

[벤치마킹 사례]

도쿄都의 CO₂ 감축 의무제도

<주요 내용>

- 도쿄都는 CO₂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0년부터 공장 등 대규모 사업소에 CO₂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함.
- 연간 원유 환산으로 1500kl 이상 사용하는 1300여 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적용함.
- 해당 사업체는 감축 목표와 방법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세계 최초로 상업부문을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도’(Cap & Trade System)를 실시함.
-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과 지역 냉난방 보급을 강화함.
-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고 50만 엔(약 5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CO₂ 감축 의무 대상 비율(출처: www.kankyo.metro.tokyo.jp)

- 도쿄都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표준 감축대책을 요구하고, 그 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건축물 온난화 대책세’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환경 외형 표준과세’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도쿄都 조세연구위원회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독자적인 탄소세안을 2007년 11월 제출함(출처: www.global-autonews.com).
 - 가솔린 1ℓ에 1.9엔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전기세·가스세를 인상함.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CO₂ 배출 기준 탄소세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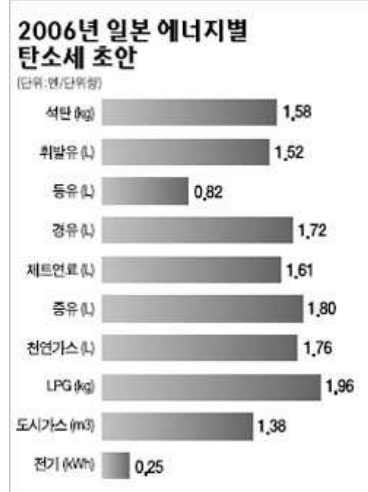
<해설 및 평가>

- 중앙정부(환경성)보다 도쿄都가 CO₂ 배출 감축 의무화에 더 적극적임.
 - 환경성은 2008년 2월 일본 전국의 상업건물에 배출 상한을 정하고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업계 반발로 후퇴함.
 - 도쿄都는 정부 방침과 상관없이 자체 목표 달성을 위해 대책을 추진함.
- CO₂ 배출 감축 의무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
 - 2002년 ‘도쿄都 환경확보조례’에 근거해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를 시행함.
 - 도내 대규모 사업소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연간 CO₂ 배출량과 감축 목표 등을 수록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함.
 - 2005년부터는 1300여 개 대규모 사업장에 CO₂ 배출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탄소세: 조세제도의 녹색화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최선의 방법”(Economist, 2007. 6)

-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대 초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시작, 최근에는 프랑스, 캐나다(퀘벡) 등에서도 도입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오염자 부담)
 - IPCC(2007)는 CO₂ 1톤 당 사회적 비용을 약 US\$12로 추정
 -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연료별 탄소함량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
- 탄소세 도입에 따른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취해야 함(조세 중립).
 - 단순히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화석연료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중배당 가설).
- 조세 감면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역진성).



(출처: economy.hankooki.com)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에너지 사용 및 CO₂ 배출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음.
 - 국가 단위의 에너지 총조사는 1981년 이후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에너지 총조사는 없음.
- 관계 법령체제가 미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모호함.
 - 현재의 휘발유특소세는 목적세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하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곤란함.
- 시민과 기업의 인식이 부족함.
 - 북서유럽의 경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체의 반발과 시민의 조세저항이 실행상의 가장 큰 문제였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현행 휘발유특소세를 탄소세와 혼잡통행료 체제로 변경함.
 - 탄소세는 지속가능특별회계로 편입하고, 향후 혼잡통행료는 지방지속가능특별회계로 편입함.
 - 세수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
-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 및 CO₂ 배출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부문별·용도별 CO₂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함.
 - 자동차의 경우 종류, 연식, 연비에 따른 CO₂ 배출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CO₂ 배출 감축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음.

<벤치마킹 기대효과>

-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가 절감됨.
 - 재생가능 에너지 등 非화석연료의 경제성 증가로 보급이 확대됨.
 -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로 에너지 효율이 향상됨.
- 화석연료 소비절감에 따른 CO₂ 배출량이 저감됨.
 - 전 세계 CO₂ 배출의 대부분(80% 이상)은 화석연료 사용에 기인함.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함.
 - 독일의 경우, 탄소세 도입 등 생태적 세제개혁 후 조세수입의 13%를 환경오염 개선과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등에 활용할 수 있었음.
- 탄소세의 도입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바뀜.

/김경철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gckim@sdi.re.kr)

1. 지역 특징 살려 디자인한 자전거 거치대 (뉴욕)

- 뉴욕市는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대회’를 개최해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음.
- 뉴욕市는 교통체증 해소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자전거 이용 촉진방안을 모색해 왔음.
- 市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수 천 개의 자전거 거치대를 새로 설치하고 있음.
- 대회의 심사위원이기도 한 설치미술가는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 9개를 우선 선보임.
- 월 스트리트에는 달러(\$) 모양, 윌리엄버그 지역에는 기타 모양, 링컨터널 근처는 자동차 모양, 미술관 지역은 현대 추상미를 나타내는 모양의 거치대를 설치함.
- 예술성을 띤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평범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www.nytimes.com/2008/08/09/arts/design/09bike.html?_r=1&scp=2&sq=bike%20%20rack&st=cse&oref=slogin)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市는 브로드웨이 4차선 중 2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기획하는 등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전거 사용자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 규모의 자전거 거치대 배치와 유리로 된 거치대 벽면에 뉴욕 5개 區의 자전거 지도, 자전거 대여점 위치, 자전거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

- 뉴욕市가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치대 디자인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도리어 보행로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거리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공공건물에 자전거 배치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지하철 역 주변의 자전거 배치대도 수요가 부족해 자전거가 중첩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보행로는 교통통제함, 신호등대, 가로등,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로 복잡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소규모 디자인 자전거 배치대 설치에 혼잡한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뉴욕市의 기존 자전거 배치대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 정보를 부착한 자전거 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skhong@sdi.re.kr)

2. ‘미술 작품=고가’ 인식 깨는 미술 박람회 (베를린)

- 베를린市의 독특한 미술 박람회인 ‘Art...Essenz’가 2008년 8월 22~24일 포츠담 광장의 소니센터(Sony Center Berlin)에서 열림.

- ‘Art...Essenz’는 전도유망한 젊은 미술작가의 작품을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선보이는 미술 박람회로, 여기에 출품되는 작품의 가격은 모두 100 유로(약 16만 원) 이하임.
 -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이유는 시민이 부담 없이 미술작품 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유럽의 미술시장은 많은 작가가 활동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의 작품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유명작가조차도 작품 판매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작품이나 판화를 많이 제작함.
- 전 세계에서 약 50명의 미술작가가 참가하며, 박람회 기간 중 3일은 작가와 시민이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해 대화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함.
- 젊은 작가에게는 유럽의 미술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미술 애호가에게는 가능성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소유할 수 있게 됨.

(www.artefakt-berlin.de/projekt_artessenz.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작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관람객 개발을 통한 시장 선순환성 회복이 강조되는 현재, 작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박람회 개최는 중요한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신진 작가에게 작품 판매의 기회를 주고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작가의 경제적 지원, 시민의 관람 및 소유 욕구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임.
-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쿄都의 ‘Tokyo Wonder Wall’ 등 대도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도 이러한 개념의 ‘미술 장터’를 개최해, 작가에게는 작품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3. 상가 화장실, 시민 모두 함께 이용하세요 (런던)

○ 런던시는 상점이나 사무실 건물 화장실을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2005년 리치몬드區에서 처음 실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지역사회 화장실’(Community Toilet)을 도입하는 자치구가 늘면서, 런던시가 상가 화장실 공동 사용 활성화에 나섬.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은 사업주는 市와 협정을 맺고 일정 금액의 기금을 지원받음.

- 최근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이 불편을 겪을 정도로 공공화장실이 부족하고 시설 낙후 문제도 심각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화장실 설치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법·행정 절차가 복잡함. 장기적으로 공공 화장실을 확충하되 당장은 상가나 건물의 화장실을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www.richmond.gov.uk/community_toilet_scheme)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254)

(www.london.gov.uk/assembly/reports/health/public-toilets.pdf)

4. 도시 홍보용 DVD와 가이드북 제작 (도쿄)

○ 도쿄都 생활문화스포츠국과 산업노동국은 도쿄都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도시 홍보용 DVD와 관광 가이드북 등을 제작함.

- 도쿄 홍보용 DVD인 ‘Future’s Set to Tokyo’는, 매력 있는 도시로서의 도쿄의 역사·현황·장래성을 ‘바다의 숲 프로젝트’나 ‘도쿄 오리지널 문화산업’ 등 최신 동향을 통해 소개함.

- ‘Tokyo Colors’는 도쿄 관광안내 DVD로, 400년의 역사 및 전통과 선진기술 문명이 공존하는 도쿄의 매력을 홍보함.
 - 4계절 색깔을 통해 도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함.
 - ‘Tokyo Colors’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도쿄 문화의 본질을 표면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도쿄의 개성을 살려 표현함.
 - 거리, 멋, 형태, 생각, 길, 음식, 자연 등 테마를 나눠 외국인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엄선함.

- 이번에 제작한 DVD는 해외 도시의 관광 프로모션이나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회의 등 도쿄都가 주최·참가하는 각종 국제회의 및 이벤트에서 활용될 예정임.
 - 해외 미디어나 여행사, 재외 공관 등에도 폭넓게 배포할 계획임.



‘Tokyo Colors’ DVD 및 관광 가이드북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8/20i81100.htm)

한줄 뉴스

<상하이>

-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위해 외국인 안내서비스를 개설하고 모든 지하철역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 2008년 8월 18일 풍력, 태양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발표

5.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브랜드화 사업 (요코하마)

- 2009년 개항 150주년을 맞이하는 요코하마市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제2의 도시로서의 매력이나 장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코하마市 브랜드화를 기획함.
 - 요코하마市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려 마을 만들거나 관광 교류 추진 등에 활용하고, 요코하마 시민에게 도시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도시에 대한 시민의 애착과 프라이드를 높임으로써, 지역 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의식도 높일 수 있음.
 - 요코하마의 도시 브랜드를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내, 시민이 요코하마의 역사와 매력을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개항 150주년 기념으로도 후세에 남기고자 함.
 - 시민 참여에 의한 요코하마 브랜드 구축을 담당할 전문 민간업자를 공모형 제안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음.

(www.city.yokoama.jp/me/keiei/seisaku/brand/proposal.html)

산업 · 경제

6. 런던市와 관광 홍보 교류 (도쿄)

- 도쿄都는, 2016년 연간 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외 도시와 협력해 상호 관광 홍보를 실시함.
 - 도쿄都와 런던市가 각 도시에 무료 전시회장을 열고 서로의 도시 매력을 홍보하게 해,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

- 도쿄都에서는 2008년 8월 25일~9월 12일 도청사 내 전망실과 관광정보센터에서 런던의 4대 세계유산과 관광지 소개 등을 중심으로 런던市를 홍보함.
- 런던市에서는 2008년 8월 21일~9월 15일까지 런던 시청의 'Lower Ramp'에서 도쿄의 지역별·테마별 관광지 소개, 도쿄 관광 DVD 'Tokyo Colors' 상영, 2016년 도쿄 올림픽 유치 홍보 등을 진행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8/20i8k5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와 런던市의 관광 홍보 협력은 일종의 제휴마케팅으로 볼 수 있음.
 - 제휴마케팅은 양자 간 각자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기여(Win-Win 전략)한다는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임.
 - 제휴마케팅은 종래 기업과 기업의 제휴에서 확대돼 기업과 도시, 기업과 국가, 도시와 도시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로 발전함.
- 서울시는 2007년 기준으로 28개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함.
 - 해외 자매도시 간, 정부 간, 민간단체 간 교류 혹은 친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유지하도록 지원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매도시와 관광협력 체결도 추진해 각 도시 시민이 상대 도시를 방문할 때 다른 일반 관광객보다 각종 할인혜택이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상호 도시 간 관광객 교류뿐 아니라 산업무역 교류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금기용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7. 무허가 영세 자영업자 합법화 추진 (브라질)

- 브라질 정부는 현재 자영업 종사자가 대부분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영업자가 한 달에 50헤알(약 2만 5000원)을 내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기로 함.
 - 허가증을 받아 영업하면 공공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 노후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 월 3000헤알(약 150만 원) 이하 소득의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임.

- 현재 브라질에는 무허가 영세 자영업자는 1000만 명 정도인데, 이들에게 명목상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보건 및 노후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www.estadao.com.br/economia/not_eco223380,0.htm)

건강 · 복지

8. 노숙자의 희망을 담은 친환경 복합주거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지역개발국(Community Redeployment Agency)은 27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투자해 할리우드 지역에 건설할 ‘노숙자의 희망의 캠퍼스’ 계획을 승인함.
 - 사무실과 숙소 등 70개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주거지로, 실버등급의 친환경 건물로 지을 예정이며 2008년 11월에 착공함.
 - 노숙자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숙소뿐 아니라 직업훈련소, 카운슬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부모 교육, 방과 후 수업, 영양과 요리에 관한 워크숍을 여는 등 노숙자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임.

(www.globest.com/news/1226_1226/losangeles/173162-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로스앤젤레스市の ‘노숙자의 희망의 캠퍼스’ 사업은 주거서비스를 비롯해 복지·교육·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서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스톱센터의 기능은 노숙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에서도 현재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취업 지원, 주거지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9. ‘배리어프리 도시’ 만들기에 인터넷도 한 몫 (베를린)

- 베를린市는 수년간 ‘배리어프리 도시’(Barrierefrei in Berlin)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베를린 시의회의 통합·노동·사회부는 베를린市 교통부와 함께, 장애인이 도시에서 이동·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포털 사이트(www.mobidat.net)를 개설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함.
- 이 사이트에서 장애인용 이동장치와 이용시설이 설치된 베를린市 내 모든 건물을 검색할 수 있고, 주행이나 동행 서비스 정보도 얻을 수 있음.
- 베를린市는 이미 2006년 말 대중교통의 80~90%가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됐고, 도로·역·정류소도 장애인 이동에 편하게 보완됨. 공공건물도 장애인을 위한 도시설비 지침기준에 따라 개조됨.
- 2007년부터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기준에 맞춰 개선한 쇼핑시설, 슈퍼마켓, 요식업소, 숙박업소 등 300여 곳을 선정하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임을 표시하는 노란 화살표 스티커를 발급해 왔음.

- '배리어프리 도시' 프로젝트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정의사회 구현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 차원의 중요한 도시계획 프로젝트임.

·전체인구의 약 20%가 이미 고령자이고 앞으로 계속될 독일의 인구연령 구조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리한 도시 구축은 노인사회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대책이 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8/05/106392/index.html)

(www.berlin.de/sen/soziales/behinderung/barrierefreiheit/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시는 '배리어프리 도시' 사업을 통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에서 장벽, 혹은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부문 서비스의 '무장애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스티커를 배부하고 온라인 서비스로 시설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장애 공간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에서도 '배리어프리 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보급하고, 편의시설 제공이나 서비스 접근성 등에 있어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무장애화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10.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 허가권 발부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추첨을 통해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 허가권을 발부해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할 방침임.

-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는 일반 택시와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됨.

·규정상 신체장애인 전용 차량은 일반 승객 탑승을 금지하며, 市 대중교통 부서에서 단속 책임을 맡음. 이를 어길 시 3000헤알(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 허가가 취소됨.

-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는 미니밴의 지붕을 개조해 승객을 고정할 수 있는 기구와 휠체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전기장치를 설치해야 함.
- 신체장애인 전용 택시로 개조할 경우 택시 소유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비용은 약 2만 5000헤알(약 1300만 원)이 소요됨.
- 현재 상파울루市에는 150만여 명의 신체장애인이 있음. 市 교통부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투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noticias.terra.com.br/transito/interna/0,,OI3025486-EI11777,00-SP+tera+taxis+exclusivos+para+portador+de+deficiencia.html)

방재 · 안전

11. 모든 교육기관에 긴급 구조벨 설치 (상하이)

- 상하이市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기관 안전 경고시스템 점검에 관한 통지’를 통해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과 기술학교 등에서도 기존에 설치된 안전설비의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학교 교장실과 수위실을 포함한 2개소 이상에 안전비상벨을 설치해야 함.
- 새로 설치하는 안전비상벨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되어 언제든지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함.

- 2008년 5월 쓰촨(四川) 지역 대지진 발생 시 교육기관에서의 긴급구조 설비 미비 및 미작동으로 학생의 희생이 많았음. 市 교육위원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안전설비 작동여부 및 비상벨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8/19/content_14158087.htm)

도시 환경

12. 세금공제 대신 ‘환경수표’ 받아주세요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세금공제 대신 ‘환경수표’(Klimascheck) 발급을 제안함.

- 모든 세금납부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500유로짜리 환경수표를 받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확인된 제품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Catalytic Converter)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음.
- 유가 상승 등으로 가계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해 경기상승을 도모하려는 대안임. 또한 환경보호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음.

(www.berlinonline.de/aktuelles/berlin/detail_ddp_2183730090.phpKlimascheck)

13. 공공도서관을 친환경 도서관으로 리노베이션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Exposition 공원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친환경 도서관으로 리노베이션함.

- 이 도서관은 친환경건축협회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친환경 건축 인증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도서관임.
 - 30년 된 낙후된 도서관을 리노베이션하면서 바닥을 대나무로 깔고, 면 단열재(Cotton Insulation) 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함.
 - 건물 남쪽 벽과 지붕에는 태양전지 패널을 부착하고, 도서관 주변에 그들이 생길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 에너지 효율을 높임.
 - 물 사용도 30% 정도 절수할 수 있도록 설비함.

(www.latimes.com/news/science/environment/la-me-library19-2008aug19,0,3020584.story)

14. 저배출지역제 시행에 관해 낙관적인 평가 (런던)

○ 런던시가 2008년 2월 실시한 저배출지역제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런던교통공사는 저배출지역제 시행으로 12톤급 이상 대형 화물차량 운행률이 종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함.

- 시행 첫 단계의 대상이 된 대형 화물차량 중에서 배출 기준을 준수한 차량 비율이 2007년 70% 수준에서 제도 시행 이후 96%로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함.

·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 대상이 된 3.5톤 이상 화물차량과 버스도 91%가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9123.aspx)

(www.tfl.gov.uk/roadusers/lez/about/2027.aspx)

15.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설 위원회 설치 (런던)

○ 런던시는 재활용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 정책 실행의 최선두에 설 '쓰레기 재활용 위원회'(Waste and Recycling Board)를 설치함. 런던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것은 처음임.

-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논의함.

· 매립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런던시의 가장 큰 과제임.

· 이를 위해 6000만 파운드(약 1200억 원)를 투자하며, 런던개발청에서 2400만 파운드(약 480억 원)의 추가예산을 사용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314)

16. 환경보호 콘서트 열어 도시 녹화 기금 모집 (도쿄)

○ 도쿄都의 유메노시마(夢の島) 열대 식물관은 지구온난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 계발을 목적으로 '유메노시마 베어 풋 페스티벌 Wish Flower'를 2008년 10월 12~13일에 개최함.

- 음악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베어 풋 협회의 협찬을 받아 자선 콘서트를 열기로 함.

·콘서트 입장료는 500엔(약 5000원)이고, 콘서트의 수익금 일부는 도쿄都 도시 녹화사업 기금으로 기부돼 유메노시마 공원의 녹화사업에 쓰일 계획임.

- 이밖에 초등학생 대상 환경학습 교실이나 바자회, 행사장 주변의 클린 업(쓰레기 줍기) 활동 등도 실시할 예정임.

- 유메노시마 식물관은 예전에 쓰레기장이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녹지 환경으로 조성해 공원으로 만들.

·식물관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각장의 소각열로 이용하고 있음.

·이 식물관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상징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도민 의식을 높이는 이벤트 장소로서 역할해 왔음.

(www.metro.tokyo.jp/INET/EVENT/2008/08/21i85100.htm)

한줄 뉴스

- 베를린市, 기후 보호와 에너지효율성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북경市에 '기후 파트너십' 제안
- 북경市, 중국 최초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환경거래소' 건립

17. 공공기관 건물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8월 19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기로 함.
 - 상하이市 공공기관의 전용면적은 3000만㎡ 이상으로 한 해 에너지 사용량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상하이市는 모든 공공건물의 냉난방기, 양수기, 컴퓨터 등에 전력 소모량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력량을 통제하기로 함.
 -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벽과 창틀의 보온재 설치를 의무화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만 허가하기로 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291815.html)

도 시 교 통

18. 도심 혼잡도, 혼잡통행료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혼잡통행료 실시 5년과 적용지역 1차 확대 성과를 평가한 결과, 감소했던 도심 혼잡도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런던 도심의 차량 수는 제도 시행 전에 비해 21% 감소하고, 1차 확대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비율도 14% 감소함.
 - 하지만, 도로 공간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도심 혼잡 상태가 제도 시행 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등 다시 악화하고 있음.

- 차량 진입 감소에도 도로공간이 줄어든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관 및 가스 매설관 교체작업과 부동산 개발로 인한 교통정체 때문임.
- 런던교통공사는 화물 적재·적하지점 변경, 교통 신호체계 조정, 신규 개발 사업과 협조·연계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 2008년 5월부터는 강화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사기간을 어기고 교통정체를 가속화하는 가스·수도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도시계획 개입 대책도 시행하고 있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8948.aspx)

(www.tfl.gov.uk/assets/downloads/sixth-annual-impacts-monitoring-report-2008-07.pdf)

19.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첫 시행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10개 역에서 120대의 자전거를 기반으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스마트 바이크 디시’를 시행함.

- 40달러(약 4만 원)의 연회비를 지불하면 회원카드가 발급되고, 회원은 한 대의 자전거를 최장 3시간 이용할 수 있음. 3시간이 지나면 반납처리 후 다른 자전거를 다시 빌릴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회원에게는 자전거 관련 법률과 자전거 도로 지도 등을 담은 ‘안전한 사이클링 가이드’를 제공하며, 헬멧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 자전거 절도와 파손 방지를 위해 회원카드 소지자만이 대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파손 및 분실 시 최고 550달러(약 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스마트바이크 디시는 여행자보다 市 거리에 익숙한 경험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18세 이하는 이용이 불가능함.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8/12/AR2008081202907.html?referrer=emailarticle)

20. 도로 소음방지 위해 기업 의견 수렴 (베를린)

- 유럽연합의 환경 소음방지 지침의 실현을 위해 베를린시는 2008년 5월 ‘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안’(Lärmaktionsplan)을 제출함.
 - 소음방지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석
 - 이제까지 시행된 소음방지 대책과 효과 분석
 - 화물차, 전차, 지하철에 대한 소음 방지 전략과 콘셉트 구성
 - 철도와 항공교통의 소음 분석·기술
 - 소음 금지구역의 정의와 보호 대책 마련
 - 베를린 상공회의소, 수공업 협회, 운송업 협회는 베를린시의 소음방지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 설문조사를 하기로 함.
 - 설문조사의 중심내용은 소음방지를 위한 자동차 속도 제한, 화물차 운행 금지 도로 설정, 도로 축소 등의 계획이 기업경영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등임.

(www.berlin.ihk24.de/produktmarken/startseite/index.jsp)

(www.berlin.de/sen/umwelt/laerm/laermminderungsplanung/de/laermaktionsplan/entwurf.shtml)

한줄 뉴스

<브라질>

- 상파울루시, 제16회 ‘국제 만화제’(Anima Mundi) 개최로 문화산업 성장 기대
- 리우데자네이루시, 인권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해 청소년 대상 범죄 유혹 상담 서비스 제공

도시계획·주택

21.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 조례 통과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부유한 도시에 콘도나 아파트를 지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를 승인함.

-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는 지역의 주택개발 시 저소득층을 위한 시장가격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발업자에게 의무조건 등을 부과하는 것임.

·시의회는 구체적인 법안을 2008년 말까지 제정해 시행할 예정임.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체나 직원용 주택을 건설할 경우 市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주고자 논의 중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include14-2008aug14,0,4442599.story)

한줄 뉴스

<런던>

-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클링 센터' 개장

- 2008년 9월 21일 자전거 축제인 '자유로운 바퀴'(Free Wheel) 개최

- 관광산업과 무역업 홍보를 위해 북경올림픽 기간에 북경에 '런던 하우스' 개설

- 런던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런던 경제개발 스냅샷'(London Economic Development snapshot) 발행